

한국에서 국제이주와 개발의 정책적 연계 : 가능성 탐색

조 영 희 (Younghee Cho)

어느 국가이든 정부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함에 있어 여러 분야의 정책 간 연계는 매우 필요하다. 특히, 전 세계 공통의 개발목표인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(SDGs, 2016-2030)에서 다양하고 광범위한 분야 간 통합적 추진을 통한 개발목표 달성을 강조하고 있어서, 앞으로 개별 국가들의 정책수립과 이행과정에서 정책 간 연계는 더욱 중요한 화두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.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수십 년간 축적되어 온 이주와 개발의 관계에 관한 낙관론적, 비관론적 이론과 담론들이 현실적인 정책 속에서 어떻게 구체화 될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. 선진국들은 그 동안 개발도상국의 빈곤과 불평등문제가 해외로의 유출이주를 촉발하는 근본원인이라 보고, 그것을 해소하려는 차원에서 이주와 개발의 관계를 조명했다. 선진국들이 자국 내 체류하는 이주자 집단의 주요 출신국에 ODA를 전략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다.

그러나 보다 통합적인 개발의 관점에서 볼 때, 이주의 두 측면인 '취약성'과 '잠재성'은 이민정책과 개발정책의 양 측면에서, 수용국과 송출국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. 2015을 전후로 한 국제사회의 이주와 난민현황 변화와 위기, 그에 따른 국제협력과 연대의 노력, 2020년 코로나 19로 인해 전 세계 화두가 된 인간안보는 국제이주가 인간, 사회, 그리고 국가와 세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준다. 지난 몇 년간 OECD/DAC(개발원조위원회)는 이주와 난민문제가 개별국가의 이민정책과 개발정책의 변화에 구체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다. 일례로, 선진 공여국 내 난민지원 문제, SDGs 목표 달성을 위해 ODA 활용 범위에 대한 기준 제시 등이 그것이다. 그렇다면, 이주에 관한 한 송출국에서 수용국으로, 개발에 관한 한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변모한 한국이 이주와 개발을 연계한다면, 어떠한 목표와 전략, 그리고 방법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인가? 그 가능성은 이주와 개발정책의 직접적, 간접적 연계, 그리고 한국이 처한 신지정학적 맥락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.

조영희 박사는 현재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방문학자이다. 2006년 '캄보디아의 민주화와 정당정치'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, 2007년부터 (사)한국동남아연구소와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했고, 2012년부터 현재까지 이민정책연구원에서 연구와 교육활동에 주력하고 있다. '동남아시아-이민·난민정책-개발협력' 분야를 융합하는 연구에 관심이 많다. 관련하여, (2012)이민과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, (2016) 유입국의 개발친화적 이민정책에서 이민자 역할과 활용, (2018) 글로벌이주거버넌스를 통해 본 한국 이민정책의 방향, (2019)난민정책과 ODA 정책의 연계, (2019) 신남방정책과 한국-아세안의 이민협력 등이 있다. 연구와 교육 외 이민정책자문위원회,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및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,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 등의 등 정부 민간자문단으로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.

일시: 2020년 6월 25일 (목), 16:00-17:00

장소: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영원홀 (210호)